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9월 1일부터 혜택... 2020년 3월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군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1천만원~2천만원 차등 지급)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된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9월 1일(00:00~)부터 2020년 2월 29일(24:00)까지로 2020년 3월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보장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한 △폭발, 화

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사망, △강력·폭행범죄 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 등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민방위 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에게는

든든함을 주고 행정에서는 군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5월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8월 중 보험사를 선정·가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이라니 듣는하다"라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불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게 재해나 사고인 만큼 미리 준비를 해둔다는 측면에서는 안전보험 가입 소식이 아주 반갑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원선 기자

반딧불이 신비탐사 인기 프로그램 1위

무주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이목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반딧불이 신비탐사(8.31.~9.8.)와 반딧불이관 등 반딧불이 관련 프로그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반딧불이 신비탐사(당일 09:00~ 선착순 현장접수)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해마다 반딧불이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탐사는 스페셜 탐사(참가비 1인 1만 5천 원)와 일반 탐사(1인 1만 원)로 진행되며 스페셜 탐사에는 곤충 전문가가 동행해 반딧불이의 생태와 일상을 꼼꼼히 설명해줄 예정이다.

또 탐사차량 안내 시스템을 보강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로 안내를 진행하며 관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반딧불이대대를 별도로 운영해 방문객들의 안전한 탐사를 도울 예정이다.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의 개막을 앞두고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반딧불이관 등 반딧불이 관련 프로그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반딧불이 팀장인 이정은 팀장은 "반딧불이를 보고 싶어 하고 신비탐사를 고대하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 탐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했다"라며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단순 구경거리가 아니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지표곤충이자 천연기념물(제322호)이기도 한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가 기후나 습도 등 자연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해 축제장 내 예체문화관에 반딧불이관(주제관)도 운영한다. /무주=전원선 기자

진안군, 치매안심마을 48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 보급

진안군은 27일 올해 치매안심마을 제1호인 마령면 48가구에 가스자동잠금장치를 무상 보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전북광역치매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가스자동잠금장치를 위한 신청과 설치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 6월과 7월에 전체 129가구에 대한 가스배관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48가구를 선정해 가스배관 교체와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설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2개 마을에 가스자동잠금장치

를 보급하면서 보급률이 97%에 달해 고령노인과 치매환자들이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이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전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 참가자 모집

내달 8일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서 진행

장수군이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전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셋째 날인 9월 8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http://www.jangsupfestival.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장수 대표 축제는 오는 9월 6~8일까지 장수읍의압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의 상금이 주어지며 그 외 기타음·면대할 경기 등 번외게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한우곤포 나르기 대회는 제13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셋째 날인 9월 8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홈페이지(<http://www.jangsupfestival.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장수 대표 축제는 오는 9월 6~8일까지 장수읍의압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사과사이버팜 홍보 수확체험

장수군은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장수사과시험장 및 관내 농가에서 사이버팜 분양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 사과 수확체험을 실시한다.

27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장수사과 수확체험 행사는 1월 초 인터넷을 통한 분양 받은 사과나무를 대상으로 사과 나무의 최적 수확량을 사전 분양받은 품종별 1주당 홍보 10kg, 하니 18kg, 후지 18kg·30kg를 보장한다.

이번 수확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분양자에게는 별도 사과를 수확해 택배로 배송할 계획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김성수 소장은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장수사과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청명한 가을날 장수에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지 사과 수확체험 행사는 10월 중순에서 10월 하순에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장수사과 사이버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 고원길 포럼 '첫 걸음'

전북도 동부산악권인 진안과 무주, 장수가 걷는 길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진안, 무주, 장수 세 지역의 걷는 길을 연결하여 '무진장 고원길(가칭)'이란 광역트레일을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첫걸음으로 27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고원을 달다 - 무진장 고원길' 발전방안 포럼을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북생활자치포럼과 진안고원길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세 명의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엄기일 진안역사박물관 학예사가 무진장의 역사·문화·지역적 동질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했으며, 문순수 내포문화술길 사무처장은 광역트레일로서 내포문화술길을 소개했다.

정병기 진안고원길 사무국장이 무진장의 현재 걷는 길을 정리해 광역트레일 '무진장 고원길'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최태영 문화기행가를 좌장으로 나선 무주마을교육공동체 대표, 박종석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센터장, 박진희 초록누리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안계현 진안군 관광과장은 "세 지역이 '진안고원(무진장)'으로 묶일 수 있는 하나의 문화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상생협의회 주요 사업으로 무진장고원길을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세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 군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지"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대표관광지 용역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의 주제로 관련 실과소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북도 토탈관광 구현을 위해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원씩 도비가 투입된다.

제1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2차 대표관광지를 202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제2차 미이산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마이 그린테라피 경관조성사업, △마이 탐방로 경관조성사업, △대표관광지 상징 관련 조성사업 등 5개 기반사업과

△진안홍삼축제, △마이 야행, △곰금척무 상설 공연 등 6개 진흥사업을 제시했으며, 국비 6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9억원 등 총 1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1차 미이산 도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명품가로 조성사업, △지질명소 해설장소 조성사업,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미이산 도립공원 탐방로 경관조성사업 등의 기반사업과 △진안 홍삼축제, 진안고원길 달빛경기, 지역러더 인력양성사업 등의 진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진안군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미이산 관광 인프라 확충과 방문객 참여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